

보도 일시	2023. 3. 2.(목) 14:00	배포 일시	2023. 3. 2.(목) 14:00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	책임자	과장 홍지원 (044-203-2841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미 (044-203-2843)

‘2023 한국방문의 해’, K-관광 성공 위한 민·관 전략 간담회 열려 -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이부진 신임 위원장, “K-관광이 우리 경제의 ‘퍼스트 무버’가 되도록 하겠다” -

‘2023~2024 한국방문의 해’의 K-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·관 전략 간담회가 3월 2일(목)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.

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신임 이부진 위원장(호텔신라 사장),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,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, 박인숙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,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.

회의에서는 한국 여행을 ‘세계인의 버킷리스트’에 각인시키기 위해 지구촌이 열광하는 K-컬처와 관광과의 융합(Convergence), 흥미롭고 독보적인 콘텐츠 개발(Charming attractions), 편리하고 안락한 관광 인프라 확장(Convenience) 등 K-관광의 3C 전략을 장르별, 주제별로 논의했다.

박 장관은 “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-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매력, 확장성을 압축하는 분야가 K-관광산업”이라며, “대체불가능한 무기인 K-컬처를 관광산업에 정교하게 탑재시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부진 위원장은 “문화예술, K-팝, 게임, 공연, 스포츠 등 K-컬처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묶어 전 세계에 판매하고, 항공·쇼핑·음식·숙박 등 관광업계의 역량을 결집, K-관광이 우리 경제의 ‘퍼스트 무버’가 되도록

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또한, “외래관광객의 불편 사항, 관광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, 관광업계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통해 ‘2023~2024 한국방문의 해’를 성공시키고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‘K-관광’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.”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.

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“‘2023~2024 한국방문의 해’ 성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”이라며, “중요한 시기에 한국방문의 해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어 캠페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윤영호 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외래관광객 확대에 대비한 관광수용태세 점검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. 박인숙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은 “국제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기초체력을 단련해야 하고, 호텔·교통·음식 등 수용 태세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.”라며, 자유 여행자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송미선 하나투어 대표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관광상품 개발 협력, K-컬처를 활용한 한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, 관광 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·학교·정부의 연계 육성 등을 건의했다.

따로 붙임 현장 사진

